

4년을 좌우할 당신의 한 표



6·4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3일 광주시 서구 염주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장소에서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개표기 등을 점검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우리 세금 절반 쓰는 단체장 ... 잘 따져보고 꼭 투표합시다

선거운동 기간인 '열전 13일'을 마감하고, 앞으로 4년, 아니 10년 이상 우리 고장의 미래와 자녀 교육을 좌우할 지역 일꾼을 선출하는 투표일이 밝았다. 4일은 광주·전남에서 422명의 내 고장 일꾼을 뽑는 날이다. 유권자마다 시장과 도지사, 시·도교육감에서 시·군·구의원까지 모두 7명을 선택해야 한다.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공천 폐지와 부활의 반박, 민주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전격적인 통합으로 인한 거대 야당의 탄생 등으로 '혼돈' 속에 시작된 지방선거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갑작스런 당 통합에 따른 후유증이 가

지방선거 선택의 날 '광주일보의 제안'

지지 않으면서 선거운동 기간 광주시장 선거를 비롯한 전남지역 일부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과 무소속 후보 간 역대 최대 최강의 혼전이 펼쳐졌다. 이 때문에 일부 격전지 선거구에 대한 선거결과가 어느때보다 주목받으면서 광주·전남 유권자들의 선택이 더욱 부각되는 시점이다. 유권자들이 뽑는 7명의 지역 일꾼 중 광역·자치단체장은 무엇보다 잘 뽑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역의 '소통령'으로, 우리 고장의 '흥망성쇠'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공무원의 인사권과 예산편성 및 집행권, 인허가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어 이들의 결정에 따라 지역의 미래 발전과 쇠퇴가 엇갈릴 수 있다. 막강한 권한은 종종 버리나 과시성 사업에 따른 재정 파탄 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각종 비리로 인해 단체장이 중도 사퇴한다면 주민의 아까운 '혈세'로 또 다시 재·보궐선거를 치러야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따라서 혈연·지연·학연·정에 얽힌

'문지마 투표'가 아니라, 전과·재산 등 사람 됨됨이와 지역발전에 대한 비전이 있는 지 등을 간간하게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중앙 정치에 현혹되기보다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거대 정당이 지역주민을 무시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이번 선거에서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아울러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광역·기초단체장을 잘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역량있고, 책임감 있는 지방의원들을 잘 뽑는 게 유권자들의 의무이기도 하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전국 1만3600곳 투표 ... 밤 11시 개 당락 운곽

내고장 일꾼을 뽑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4일 오전 6시부터 광주와 전남지역 1221개소를 비롯한 전국 1만3600여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각 후보들은 13일간의 선거운동기간에 열전을 벌인 뒤 유권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광주의 경우 광주시장과 시교육감을 비롯한 기초단체장 5명, 광역의원 22명(비례 3명 포함), 기초의원 68명(비례 9명 포함)을, 전남의 경우 전남지사와 전남도교육감을 비롯한 기초단체장 22명, 광역의원 58명(비례 6명 포함), 기초의원 243명(비례 32명 포함) 등 총 422명을 동시에 선출한다. 이날 투표는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이후 개표작업에 들어가 이르면 밤 11시께 당선자들의 운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접전지역이 많아 5일 새벽에야 당선자가 확정되는 지역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30일부터 이틀간 치러진 사전투표에서 투표율이 11.5%(광주 13.28%·전남 18.05%)에 달해 이번 지방선거의 전체 투표율이 60%를 웃돌지 주목된다. 여야 각 정당과 무소속 후보 등 광주·전남 출마자는 총 999명(광주 244명·전남 755

명)으로, 2.4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30세대와 5060세대의 세대간 투표가 팽팽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상대적으로 소극적 투표성향을 보였던 40대, 특히 앵그리맘들이 어느 정도 투표에 참여하고 어느 진영에 투표할지 주목된다. 이날 투표는 사전투표 때와는 달리 유권자들의 주민등록지에서만 가능하다. 개표는 투표소로부터 투표함이 개표소에 도착하는대로 오후 6시30분께부터 시작되며, 총 252곳의 개표소가 설치되고 10만7335명의 개표 인력이 투입된다. 이중 25%에 달하는 1만8932명은 국민 공모로 선정됐다. 개표는 수작업으로 진행되며, 일반투표와 사전투표를 구분해서 개표하고 사전투표 결과는 따로 집계한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6·4 지방선거

1인 7표 ... 투표 방법은? ▶ 2면
광주시장 선거 정칙권 파장 ▶ 4면
시도지사·교육감 마지막 호소 ▶ 5면

다시 일상으로...축제·공연·여행 재개

문체부 '여가 정상화' 공문

여행선 세월호 침몰 사고로 전면중단되다시피 한 공연, 축제, 여행 등 문화예술체육관광 관련 여가 활동이 정부 주도로 조심스럽게 재개되기 시작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적 애도 분위기가 이어지지만 내수침체가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짐에 따라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광주·전남 등 전국 17개 시도에 '문화·예술·체육·관광 행사' 재개 등을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 3일 문체부에 따르면 지난 4월과 5월 기획성 공연을 대거 취소한 '문화가 있는 날'(매달 마지막 수요일) 행사가 이달부터 이전과 비슷한 규모로 준비된다. 6월이 호국

보훈의달이라 요란한 행사는 지양하되 정상 수준으로 의미 있는 공연을 마련할 계획이다. 7월부터는 기업의 참여도 크게 늘릴 예정이다. 관광 분야에서는 여행 심리 회복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비롯해 국민 참여 프로그램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최근 정부 각 부처와 광주·전남 등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6단체에 '문화·예술·체육·관광 활동 정상화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특히 교육부에는 별도 공문을 통해 "각급 학교의 문화·예술·체육·관광 관련 체험형 학습 활동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타입 476명 구조 172명
실종 16명 사망 288명
※ 세월호 참사 51일째
3일 오후 8시 현재 ▶ 관련기사 7면

광신대학교
사랑과 감사의 60년
1954
60th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키농샤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14년 6월호

5월 28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클래식을 좋아하세요?
6월엔 캠핑 떠나볼까?

클래식을 좋아하세요?
드라마, 영화 타고 온 클래식의 진짜 매력 속으로

전문가가 말하는 클래식 음악의 세계
광주의 클래식 현주소와 감상 공간 소개

기획
6월엔 캠핑 떠나볼까?
-취향 따라 진화하는 캠핑문화
-스마트 캠핑을 위한
캠핑요리 레시피와 장비구입 요령
-가 볼 만 한 광주전남 캠핑장 소개

예향 초대석
중요무형문화재 옥장 장주원
'한국 옥'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명인의 예술세계를 만나다

이달의 아티스트
소리꾼의 끼와 열정이 빛나는
예술감독 윤진철의 '젊은 국악' 이야기

화보
내년 60돌 앞둔 호남예술제
59회 예술관아무들의 열띤 공연 무대

스포츠 이야기
6월 막 오르는 2014브라질월드컵
"치유의 월드컵, 공감의 연대를"

추모 기획
남중화의 대가故 아산 조방원
화백의 삶과 예술

문화공간
재미난 이야기가 우수수
섬진강도개비마을

스타 데이트
도전과 성장 즐기는 '연기왕'
드라마 '감동'에서 사이코패스
열연 중인 배우 이준

마주 앉은 책과 삶
"모든 인간에게서 시를 봅니다"
깊은 울림의 서정시인 정호승이
담백한 시집들과 창작 이야기

도시재생, 문화에게 물어봐-국내외의 한장일가다

대구 근대골목
잠자던 골목의 역사 깨워 살아난 이야기들

공연 화제
초연 4년만에 광주 찾아오는
오월 연극 '푸르른 날에'
우리 땅 속살 여행-김용

피어오르는 자연, 사람, 커피 향